



제1호 FTA의 성적표 "기대이상"

세계는 FTA 전쟁 | 한·칠레 FTA
수출 60%, 수입 28% 증가 등 교역규모
크게 확대 . . .
시장개방에 대한 두려움 해소도 소득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은 APEC정상회의에서 칠레 프레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에 합의했다. 그동안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지역주의 경향에 동참하기보다는 문제점 지적에 전념해 오던 한국이 보다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꿔 FTA 추진의 첫걸음을 내

디딘 순간이었다. 이는 1997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가속화되던 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에 통상부문도 적극 동참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는 왜 칠레를 첫 번째 FTA 상대국으로 선택했는가? FTA 상대국의 선정기준으로 우선 산업구조가 우리와 경쟁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취약산업에 미치

는 영향이 너무 커서는 안 되는 점이 꼽혔다. 또 우리와의 FTA체결에 관심이 있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정책 방향이 같아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특히 첫 번째 상대국은 FTA가 복잡하고 광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경험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큰 나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이런 면에서 칠레는 더할 나위없이 바람직한 상대국이었다. 우리가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칠레는 구리, 목재 등 천연자원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주로 포도에 특화되어 있고 먼 거리에 계절적으로 우리와 정반대인 나라이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했다. 또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 중의 하나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해 중남미 경제의 우등생으로 자리매김한 국가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와의



▲ 칠레 산티아고 시내 백화점에 전시된 한국산 가전제품

FTA 체결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다. 어렵사리 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극히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또 일부는 DDA협상이 종료된 후 재협약하기로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함께 특별법 제정과 기금설치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한 후에야 협정이 발효될 수 있었다.

우리의 제1호 FTA인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1일 발

효되어 이제 1년 반이 경과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그 효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한·칠레 FTA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FTA 체결 후 1년간 칠레에 대한 수출은 59.7%나 증가하였고 수입도 28.1%가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250.3%), 컬러 TV(107.5%), 캠코더(84.5%), 자동차(59.3%) 등 우리 주력상품의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반면 농산물 수입

은 포도주(160.2%)를 제외하곤 당초 우려와 달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 FTA는 교역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칠레 국민 사이에서 한국 상품은 고품질의 세계 일류상품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칠레산 포도주의 인기가 우리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게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칠레 FTA 체결과 발효를 계기로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FTA에 대한 필요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정부가 세계 20여개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바탕 아래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